'쉬운 불교'면 다 좋은 것일까?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며칠 전 조립식 가구를 구입하였다. 드라이버가 필요없을 정도로 간단했지만 처음 끼울 때 잘 맞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함께 조립하던 보살님이 크게 실망하시기에 말씀드렸다. "조립이 쉽다면 그만큼 망가지기 쉬울 거예요. 어려운 만큼 단단한거죠." 세상일도 마찬가지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쉽게 망가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로의 전환이다. 불교계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줌 등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발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이젠 절에 가지 않고도 법문도 듣고 경전강의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명상도 할 수 있다. 새 책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출간되기만 하면 서점에 달려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중 하나는 지식의 확산이다. 전문지식이 손쉽게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불교 지식도 예외가 아니다. 이젠 누구나 원하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식의 양이 놀랄 만큼 커졌다. 그만큼 불교가 쉬워졌을까?

"선문답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교는 어려운 말을 쓰고 구름 잡는 이야기나 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한 때 '친절한 불교'가 화두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함의는 '쉬운 불교'였다. 쉬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불교를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면 바로 외면하는 요즘 세태를 따르려면 쉬운 불교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쉬운 불교가 다 좋은 것일까?

세태 맞게 쉽게 佛法 전함 필요
고도의 역설, 비유가 불교 매력
깊이 있는 전법방안도 고민해야

이미 알려진 지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다. 불자들에게 친절하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 불교대학을 세우고 불교를 가르쳤지만 '사성제', '오온' 같은 불교 용어를 읊조리는 것 이상으로 불교를 알렸는지 의문이다. 조금만 들어가면 도통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과연 옛 선사들이 "알려주지 않음의 친절함"을 말씀하신 것이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을까?

종교, 특히 스스로의 깨달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불교 본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뒤흔들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격 없이 그 어떤 깨우침이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친절한 방식'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기에 용수 보살은 '사구부정'으로 답하고 선사들은 '할'과 '방'으로 답했던 것이 아닌가.

불교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그 역설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유를 꼽는 사람이 많다.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 그것이 불교의 매력이 아닌가. 그러므로 불교는 모름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포기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세계이다.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 불교 지식의 독특함과 깊이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돼야 할 시간이다.

不二의 과학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장난하나?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불교는 온통 허망한 말장난 같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장난 같기에 초정밀 과학이자 궁극의 과학이다. 왜인가? 과학의 근간인 인과율을 매우 정밀한 수준까지 정립한 연기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공'의 개념 때문이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다. 비록 실체는 없지만, 인과적 작용은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공성'이다. 정해진바 고유한 성질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자성'이라고도 부른다. 이름뿐인 자아는 실재하지만, 실체적 자아는 본래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라고도 이름한다.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지면 실상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중도'라고 한다. 통칭해서 '불이(不二)'다. 말장난 같지만, 붓다께서 설하신 진리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기이해! 실재성은 없고 잠재성만 있다니!"

'양자중첩현상'을 확인한 어느 과학자의 탄성이다. 1세기 전 이른바 이중슬릿 실험으로 입자와 파동이 둘이 아니라는 중첩현상이 확인됐다. 불교의 말장난 일부를 현대과학이 입증한 셈이다. 중첩현상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실재성을 갖느냐 아니면 비실재성이냐는 또 다른 논란거리였다. 벨 부등식이라는 가설의 확인만 남았지만, 실험은 녹록지 않았다. 다행히 1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 노벨물리학상 수상을 통해 실험결과가 세상에 알려졌다. 결과는 '비실재성'이다. 물질세계에 실재는 없고 오로지 잠재성만 존재한다는 충격적 결과다.

양자, 인과적 작용 분명하기에 '공성'
이중슬릿실험으로 양자중첩현상 확인
붓다 가르침이야말로 '공성의 과학'

"이것이 공성이다"라고 확정할 방법은 없다. 정해진 바 없는 것이 공성이기에 뭔가를 내세우는 순간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성을 드러낼 방법은 단 하나다.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한 이번 실험과 같이, 사견자들이 주장하는 '영혼' '실체' '아트만' '자성' 등 각종 가설의 오류만 밝혀내면 된다. X는 X가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는 디그나가의 아포하 개념처럼.

물론 현대과학으로 공성을 완전히 입증할 수는 없다. 의식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정신과학이 미흡한 까닭이다. 이제 불교가 나설 차례다. 세상에 불가사의는 없다고! 논리와 언어로 해명하지 못할 존재와 현상과 속성은 없다고! 비록 확증은 체험적 통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언어도단이라는 미명하에 다르마 논리체계가 부정됐다면 붓다의 가르침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위대한 과학자 붓다가 계셨으니! 그분의 논리적 가르침이야말로 과학 너머의 과학, 공성의 과학, 궁극의 과학이다. 불교는 결코 허망한 말장난이나 비과학이 아니다. 삶의 문제를 진실하게 파고들어 사실적으로 해결하는 실용과학이자 동시에 물질과학을 꿰뚫는 정신과학이다. 삶과 과학의 불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불이다. 지혜와 자비의 불이다. 공성과 연기의 불이다.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인과를 따르지 않노라'라는 사견으로 말미암아 오백생을 여우로서 윤회해야 했던 어느 도인의 해묵은 한을 풀어준 백장선사의 불이 법문으로 마무리한다.

"깨달은 자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닙니까?"

"다만 인과에 어둡지 않노라!"

社 說

동국대 '대학생 전법 역량 결집' 환영한다

지난 5월 11일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한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역량 결집에 나섰다고 한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9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동국대 불교동아리 연합간담회'를 개최했다.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와 지도교수, 지도법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아리 대표들에게 장학금 수여가 이뤄졌고, 향후 동아리 지원 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학교 측의 동아리 지원 계획을 들어보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당장 동아리 대표들에게는 '동국건학장학' 명목으로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모든 회원들에게는 '동국가람장학'을 통해 연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학생들도 이 같은 지원에 화답하듯 단과대학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 계획도 내놨다. 법과대학 '불법(佛法)단체'의 경우 중구민과 동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봉사와 사찰 관련 법률 쟁송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으로 발표했고, AI융합대학 'BUDDHAI'는 정각원 메타버스 구축을 계획으로 내놨다.

전폭적인 지원과 신행할 수 있는 장을 여니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신행 및 전법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이 주도적 신행활동이야말로 대학생 불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 전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모범적 전법 모델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비구니스님 아카이브 구축에 부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산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비구니 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2020년부터 전국비구니회에서 시작한 '비구니인물사전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 사업'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역대 비구니스님들의 활동과 정보를 디지털로 축적·확장해 나가기 위해 시작됐다. 아카이브는 '한국비구니수행담록' 상·중·하 3권에 실린 비구니스님 329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외에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가한 스님들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비구니스님의 생애와 수행 과정, 사찰 정보와 포교 활동 사항까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그 활용도가 기대가 된다. 특히 텍스트를 분석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시맨틱 데이터'를 적용, 의미 있는 키워드끼리 연결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불교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은 불교 계승·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음에도 비구스님에 비해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는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성이나 노인, 아이들은 기록되지 못한 주변인이었기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비구니 승가가 앞선 비구니 선지식들의 생애와 사상이 담긴 기록들을 발굴·연구해 그 결과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 것은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비구니스님들의 면면을 대중들에게 잘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존자 28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서경보 일붕존자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불기2568(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음5월9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